



준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108년 만에 東進한 세계철학대회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은 필로소피아(Philosophia)를 대신해 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철학(哲學)’이란 말은 일본인 니시야마네(西洲, 1829-1897)가 만들었다. 니시야마네는 ‘철학을 회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의 ‘키데츠가쿠(希哲學)’ 과목명을 사용했고, 1874년 <백인신문(百人新論)>에서 ‘키데츠가쿠’ 대신 ‘데츠가쿠(哲學)’라는 말을 썼다.

철학이라는 말을 만들고, 빠르게 서양철학을 유행시켰던 일본을 몰라치고 대한민국 서울에서 세계철학대회가 열렸다. 일본의 독도침탈에 이어 중국까지 이어 도를 넘보는 요즘, 중국·일본을 제치고 동양 최초로 개최한 제22회 세계철학대회는 폭염 속 시원한 소나기 같은 사건이다.

1900년 프랑스 파리의 제1회 세계철학대회 후 5년마다 보스턴·옥스포드·하이델베르크 등 서양을 뒤흔들다 108년 만에 동양을 찾은 대회를 두고 학계는 ‘철학, 108년만의 동진(東進)’이라 표현했다.

이번 대회는 불교·유교·도교 등 동양철학이 독립분과로 채택되면서 동양철학 비중이 높았다. 그동안 동양철학은 물론 한국 사상은 학계에서 비주류였고, 불교와 유교도 ‘종교학’의 분야로 취급됐을 뿐 철학으로는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회는 합석한 등 한국 사

상가들과 불교 등 동양철학을 세계에 알린 귀중한 기회였다.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서울대에서 ‘오늘의 철학을 다시 생각한다’는 주제로 열린 대회는 104개국 2600여 철학자들이 54개 분과에서 478개 주제 토론을 펼친 철인(哲人) 올림픽이었다.

불교철학 분과에서 발표된 논문은 모두 33편. 일본 12편, 한국 6편 등 순이었다. 일본에서는 스에키 후미히코 박사(도쿄대) 등이, 한국에서는 고영섭 교수(동국대) 등이 발표했다.

한국학자의 6편 발표논문에는 원호·지눌·성철 스님 등 한국 고승에 대한 발표가 있어 다채스럽다. 하지만 6편과 12편이란 발표 논문 수는 처지고, 한국학자의 전체 발표논문 166편 중 불교철학 분과 논문 6편은, 일본학자 57편 논문 중 12편이 불교철학 논문이었다는 사실과 심하게 비교된다.

대회 준비 단계에서 불교학계에 홍보가 될 뻔 수도, 불교학계가 다른 학회와 연구로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회에서 만난 한 교수의 “영어로 발표하고, 토론할 역할을 갖춘 불교학자가 드물다”는 말이 좀 더 신빙성 있게 들린다. 제22회 세계철학대회가 막을 내린 지금, 불교학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다시 생각할 때다.

“한국불교의례를 중심으로 불교 관련 고문서와 문화재 자료를 모으다 보니 독도와 한국해가 기명된 지도 자료를 함께 수집하게 됐죠.”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정각 스님(원각사 주지)이 소장한 독도·한국해 표기 지도 한 점을 김종성 대표(독도사랑회·시의원에)에게 처음 기증한 때가 올해 초다. “스님이 부처님 말씀 담긴 경전이 필요하듯 이 지도는 독도지권이 활동하는 사람에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 전부였다.

현재 옥션 경매가 1500만원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자료로 인정받은 일간지 ‘르 프티 저널(Le Petit Journal)’은 프랑스의 대중지로 인지도 높은 일간신문이었다. 1894년 9월 3일자 별지에 실린 삽화 형식의 지도에는 한국과 일본의 국경선을 통해 상에 분명히 표기한다. “한국과 일본, 동중국의 지도”라는 제목으로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I. Ouen-San)’라고 기록된 것이다. 당

### 독도 고지도 40여점 수집·기증한 정각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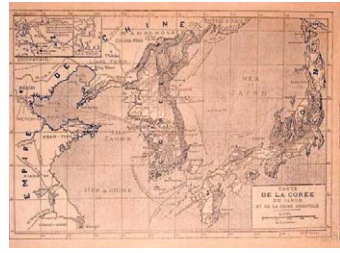


정각 스님과 ‘우산도’로 표기된 1894년 프랑스 지도(오른쪽).

시는 청일전쟁 때로 한국은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세력 다툼 속에 표적이었다.

스님이 최근까지 수집한 독도·한국해 표기 지도는 약 40여점으로

1785년 영국의 지도회사 토머스키친사에서 제작한 아시아 지도뿐만 아니라 1835년 미국 토머스 브래포드사에서 제작한 아시아 지도에도 ‘한국해’로 표기돼 있음을 입증하고 있



다. 이를 포함한 총 40여 점의 지도를 독도사랑회에 후원했고 9월 경 고지도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스님은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분쟁이 지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자료 자체가 지닌 의미보다 시대의 조류가 원하는 가치일 것이다. 더욱이 한국인이 원하는 바에 비해 불교예만 국한시키지 않고 미약하나마 대중적인 차원에서 한국사에서 제작한 아시아 지도에도 ‘한국해’로 표기돼 있음을 입증하고 있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에 위치한 외로운 돌섬 독도. 우리의 땅이라고 믿으며 의심해본 적 없는 독도가 분쟁에 휘말린 현재, 스님의 소장한 고지도가 전하는 사회정신의 치유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과거를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역사속 독도의 존재를 알리고 독도의 존재를 모르는 이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독도의 귀속 처에 대한 ‘한국령’ 기술을 ‘주권미확정(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한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만행이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때가 7월 22일이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7월 30일(한국시간) 독도의 공식명칭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고, 영유권은 ‘한국(South Korea)’과 ‘공해(Oceans)’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언제 재발될지 모르는 불안한 속에 독도는 소용돌이 정국의 무대가 되고 있다. 기연속 기자

### 北 조불련 새위원장에 심상진 부위원장 선출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에 심상진 부위원장(사진)이 선출됐다. 조선불교도연맹은 8월 6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앞에서 팩스를 보내 “지금까지 부위원장으로서 사업하던 심상진(법봉 스님) 대선사님이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되었음을 알린다”며 “앞으로도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불사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불련 심상진 신인 중앙위원장은 1944년 양강도에서 출생, 김일성사범대를 졸업했으며 문화재보존총국 부장을 지내다 1974년 불교학원을 졸업한 후 조불련에 입문했다. 1989년 조불련 서기장, 2001년 조불련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법민력복축본부 중앙위원회 겸임하고 있다. 김성우 기자



### “종교편향방지 입법협의체 추진”

총리실, 조계종 종교차별 시정 요구 성명서에 회신

종교차별 시정과 관련한 조계종의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회신을 보내왔지만, 조계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국무총리실은 8월 6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앞으로 발송한 ‘대한불교조계종 성명서에 대한 회신’에서 ▲종교편향행위 공직자 엄중문책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조치를 약속했으나, ▲쫓발시위 관련 구속자 석방 및 수배 해제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공문에서 총리실은 종교편향방지 입법과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계, 학계, 법조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

는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차량의 검문과 관련된 관계자에게는 “담당경찰관 전보조치,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계고, 종로경찰서장 서면경고” 등의 징계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혀 경찰청장 해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대변인 승원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기대에 미흡한 책임감 없는 답변이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어청수 경찰청장은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검문과 관련, 8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교계에 사과했다. 김성우 기자

### 종교편향금지법으로 ‘성난 佛心’ 달래나?

與, 입법추진 팔 걷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 대한 경찰의 차량 검문 등으로 불교계가 대규모 시국법회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종교편향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종교편향 사건에 따른 불교계의 반발을 의식,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먼저 총대를 매었다.

이 의원은 8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종신연석회의에서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종교 편향적 행동을 못하도록 제도화 해달라”며 이를 당 정책위원회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종교편향 금지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본의 처벌 조항까지 확인하고

상정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조혜진 의원도 같은 날 대통령 변호에 나섰다. 조 의원은 6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특정 종교 편향 논란과 관련, 불교계 지도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대통령이 타 종교, 특히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는데 오해 받을 만한 일들이 생겨 상당히 곤욕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불교 발전과 역사종교상생 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들을 평가해달라”고 호소했다.

한나라당이 7월 30일 불교계가 요구하고 있는 종교편향금지법을 추진키로 한 것도 정부를 향한 불교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풀이된다. 김성우 기자

###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생활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문의 : 02-2004-8279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종환(前 KBS동아112팀/영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 남산당 정일 대선사 열반 4주기 추모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남산당 정일 대선사의 열반 4주기 추모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문도스님 및 사부대중은 수희 동참하시어 함께 자리하시기를 앙망하나이다.

국민자는 이슬 맺힌 갈대숲이 좋다  
홀연 한 가닥 시황이 온 대지를 투과하니  
만년 전사 부처님 열반이 드러났네  
안개비가 내리는구나, 안개비가 내리는구나  
마지막 이별을 고하는 슬픔과 같이  
전인 미담지가 궁금하느냐?  
잔물결 이는 개울로  
가서 세수나 하거라

- 정일 대선사 오도송 -

- ◆ 일 시 : 불기 2552년 8월 23일 (음, 7월 23일) 오전 10시
- ◆ 장 소 : 삼각산 보광사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76-19)
- ◆ 연락처 : 종무소 02)993-3808

대한불교조계종 재단법인선학원

삼각산 보광사 · 남산문도회 문도일동 합장